



[제2018-22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 3. 27(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ung

## ARI Project <한국현대무용 공연> 개최

두 개의 물, 모르는 사람 만지기, 세 개의 공기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한국현대무용 공연”  
(Korean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 ▶ 일 시 : 2018.4.13(금) 19:3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박나훈무용단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 ▶ 붙임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2018 ARI Project」 세번째 무대로 해외에서 한국적 현대무용을 보여온 박나훈무용단 (안무 박나훈)을 선정하여 한국현대무용 공연 <Korean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를 4. 13(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설치미술과 춤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박나훈 무용단의 설치미술, 무용, 관객참여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 소재인 소쿠리 설치미술과 화려한 독무가 엮보이는 “두 개의 문”을 시작으로, 관객이 직접 설치미술 제작에 참여한 공간에서 어울어지는 공연 “모르는 두사람 만지기”. 그리고, 한국적 소재인 연꽃잎에서 착안한 설치미술 별문시리즈 “세 개의 공기” 등 세가지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04년 평론가가 선정한 최우수 안무가 수상을 기점으로 발족된 박나훈 무용단은 2009년 브라질 한국현대무용주간에 소개되었으며, 중국 광동 현대무용축제와 싱가포르 컨택 페스티벌에 등 해외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은 국내외 지역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무용단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안무가 박나훈 대표는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현대무용으로 현지 관객과 함께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예술의 한 단면을 같이 보고, 참여하셔서 한국의 현대무용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대표 공연 프로그램인 「2018 ARI Project」는 올해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무대는 한국의 현대무용을 준비하였는 바, 현대 설치미술과 몸짓이 어우러진 박나훈 무용단의 열정의 무대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전통무용, 국악, 재즈, 탈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 한국현대무용 공연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

### 1. Two doors/ 두 개의 문, 20 분

안무 및 출연: 박나훈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무대 위의 진실 이야기

무대 위의 무용수는 “예”와 “아니오”를 반복하며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간다. 서로 반대의 대답이며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긍정과 부정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울림과 이해를 만들어내며 사람에게 달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기도 한다.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의미의 공존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시작으로 돌아가게 한다. 치열한 작가의 호흡은 무대 위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 2. Touching unknown people/ 모르는 사람 만지기, 20 분

안무: 박나훈/ 출연: 추연정, 최아진

이 작품은 공공의 장소에서 서로 안고 안기면서 느끼는 진정한 안아줌과 가슴을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을 흥겨운 춤으로 푼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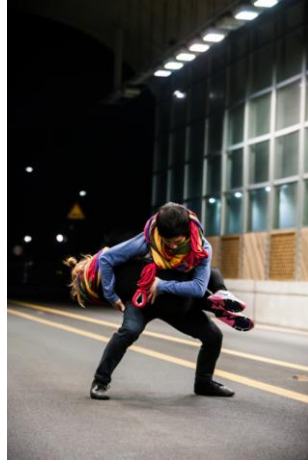
### 3. Three airs/ 세 개의 공기, 25 분

안무: 박나훈/ 출연: 박신영, 최아진, 추연정

이 작품은 공기로 이뤄진 비사실적인 혹은 엉뚱한 세 물체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사실적인 삶의 얘기이다. 공기로 채워진 세 물체들의 공기 혹은 바람의 드나듦, 그 드나듦의 메카니즘을 통해 나에게 공기로 상징되는 갈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내 삶에서 가끔은 엉뚱함, 바보 같음, 허구의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 가 있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박나훈무용단

2004년 평론가가 선정한 최우수 안무가 수상을 기점으로 발족된 박나훈 무용단은 그 후 <세계의 공기>로 2007년 한국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우수작품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되었고 이후 2009년 브라질 한국현대무용주간에 소개되었으며 그 후 <두 개의 문>이란 솔로 작품으로 중국 광둥 현대무용축제와 싱가포르 컨택 페스티벌에 초청되는 등 해외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2012년에는 한-핀란드 커넥션 사업의 국제협력 우수프로젝트에 선정되었고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초청되어 한국적 현대무용을 최초로 선보였다. 2015년에도 한-베를린, 한-싱가폴 공동제작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아트페스티벌 초청, 한, 덴마크 커넥션 사업 선정, 2016년 트래블링 아츠코리아 해외 문화원 우수작품 선정, 인도네시아, 태국 공연, 2017년 독일 코블렌츠 극장 초청, 샌프란시스코 공동제작, 스페인 마르요카 축제 초청 등 국내외 지역을 넘나드는 전방위적 무용단이다. /끝/